

최근 수출 호조의 구조적 요인과 배경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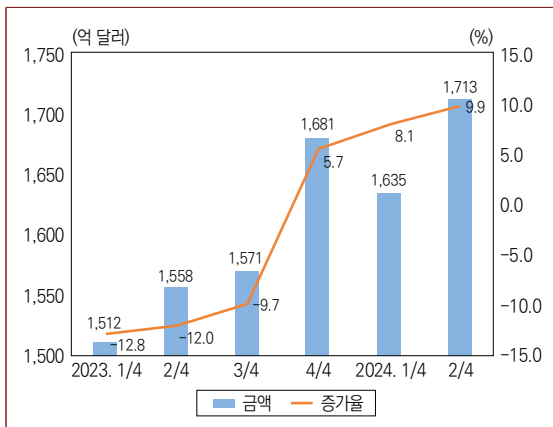
- (수출 확대 동향) 최근 한국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과 자동차, 미국으로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9개월 연속 증가,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
- (수출 구조의 변화) ① 글로벌 무역 파트너 관계 변화, ② 주요 산업의 수출 주도, ③ 소비재 수출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구조가 변화하는 중
- (수출 호조의 배경)
 - ① 미국 경기 호황과 중국의 경기 회복: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경제성장 시현
 - ② 반도체 업황의 회복: 2023년에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③ 친환경 기술 수요의 확대: 친환경 차 및 친환경 선박 등의 수출이 증가
 - ④ 한류의 확산: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수출에 긍정적 영향
 - ⑤ 강달러 현상의 지속: 한국 수출 품목의 가격경쟁력 향상
- (리스크 요인과 과제) 당분간 수출 호조는 이어질 전망이나, 리스크 요인도 존재
 - ① 특정 수출 품목 및 국가에 대한 높은 집중도, ② 대중국 수출의 지속적인 둔화 가능성, ③ 제조업 해외 현지생산의 확대, ④ 교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국의 무역 제재 강화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교역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출 구조 변화와 불확실한 세계 교역 환경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1. 수출 확대 동향

▣ 최근 한국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과 자동차, 미국을 중심으로 호조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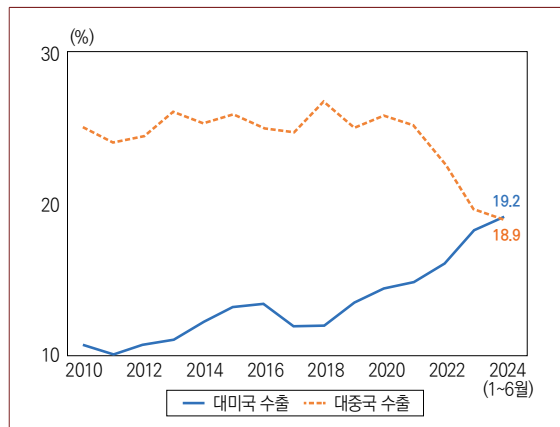
- 2024년 수출은 전년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부문의 회복세에 더하여 자동차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
 - 수출 증가율은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의 강한 회복세로 2023년 10월 증가 전환한 후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중
 - *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2023 상반기) -12.4 → (2023 하반기) -2.4 → (2024 상반기) 9.0
- 최근 몇 년간 미국으로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중국은 우리의 수출 상대국 1위였으나, 2022년부터 3년 연속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 점유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상반기 수출에서 미국 비중(19.2%)이 중국(18.9%)을 20년 만에 근소한 차이로 추월
 - * 수출의 미국 비중(%): (2022) 16.1 → (2023) 18.3 → (2024 상반기) 19.2
 - * 수출의 중국 비중(%): (2022) 22.8 → (2023) 19.7 → (2024 상반기) 18.9
 - 상반기 대미국 무역수지는 28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중국의 54억 달러의 적자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급부상

〈그림 1〉 최근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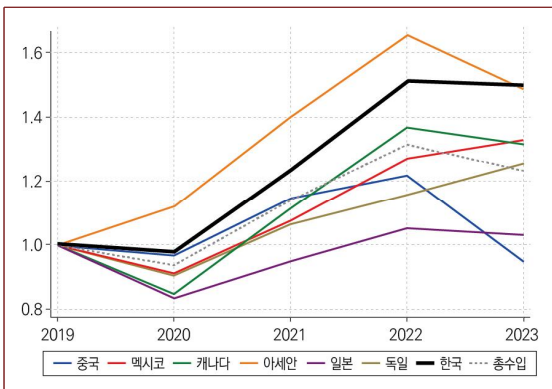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수출 구조의 변화

▣ 특징 1: 글로벌 무역 구조의 재편에 따른 주요 무역 파트너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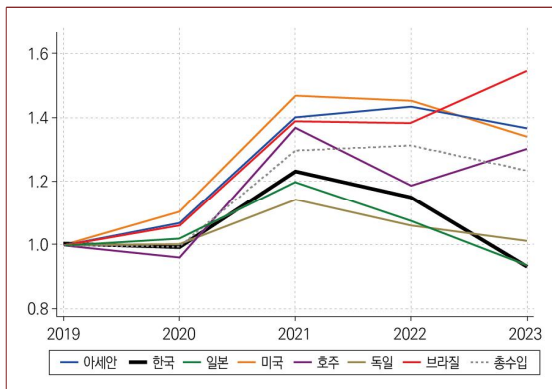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경쟁국 대비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중 수출은 감소 추세
 - 2019년 이후 미국 수입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NAFTA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증가세도 높은 편
 - * 2019년 대비 2023년 미국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한 국가는 아세안과 한국이며, 멕시코와 캐나다도 큰 폭의 성장
 - 한편, 중국의 국가별 수입을 보면 한국은 2021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브라질, 아세안, 미국은 양호한 상승세

〈그림 3〉 미국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2019=1)



자료: UN comtrade 자료 가공.
 주: 아세안을 하나의 국가로 설정.

〈그림 4〉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2019=1)



자료: UN comtrade 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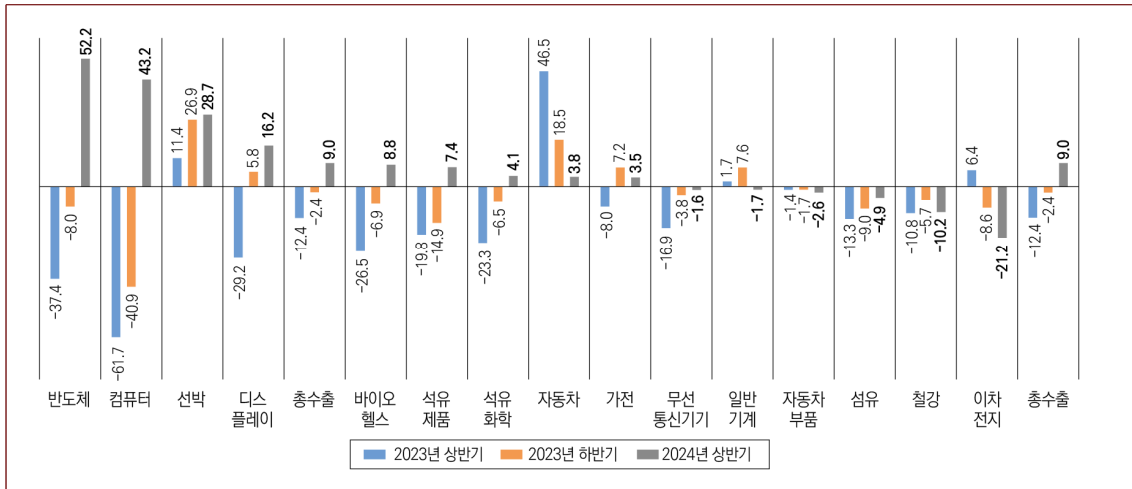
▣ 특징 2: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와 수송기계 부문이 전체 수출 성장을 주도

-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등 IT 제품의 수출단가가 개선되고 대미 수출 호조세의 지속 영향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전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중¹⁾
 - (반도체) AI 반도체 수요 증가 및 메모리 반도체 단가 회복으로 올해 6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52.2% 성장하면서 작년의 수출 부진을 만회
 - * 2023년 기준 수출 순위 및 비중(한국무역협회) : 1위 반도체 15.6%, 2위 자동차 14.8%, 3위 일반기계 8.5%, 4위 석유제품 8.2%, 5위 석유화학 7.2%, 6위 철강 5.6%

1) 산업연구원(2024. 5),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보도자료, p. 15.

〈그림 5〉 주력산업 수출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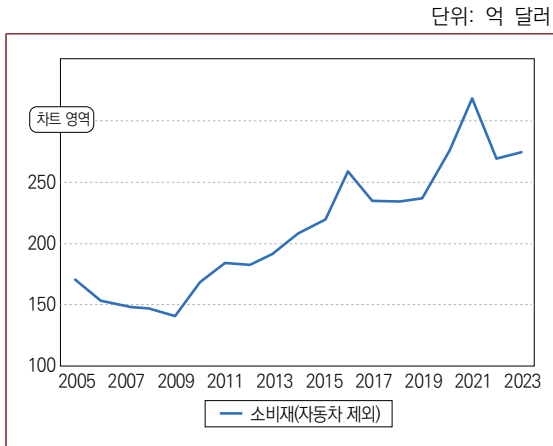
- (자동차) 2023년에는 93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올해에도 미국시장 판매 호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
- (선박) 2021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고부가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6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8.7% 증가하고, 3개 반기 연속 10% 넘는 성장세를 유지 중

■ 특징 3: 소비재 수출의 뚜렷한 증가

- 한국은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다양한 소비재 품목들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
 - 자동차를 제외²⁾한 소비재 수출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4년 200억 달러를 달성한 뒤, 2023년에는 250억 달러를 상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큰 규모의 수출을 기록
 - 화장품 수출은 2005년 2억 달러에서 2021년 7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상반기 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전
 -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축소(2023년 전년 대비 22.6% 감소)되었음에도,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미국(+46.4%), 홍콩(+29.3%), 베트남(+36.0%) 등으로의 수출이 확대
 - 라면 수출금액은 2015년 2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0억 달러로 8년 만에 5배나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2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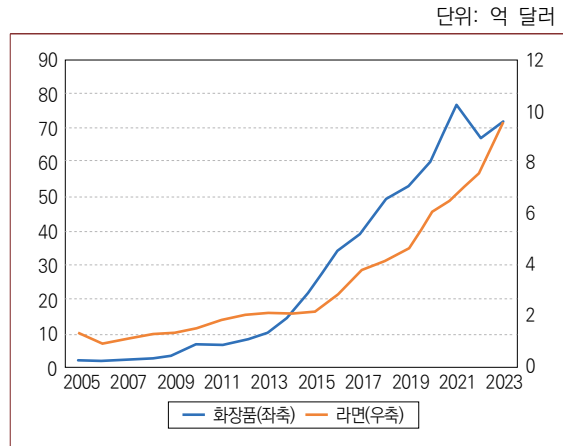
2) 자동차는 최종소비재이지만 그동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해당하여 본 분석에서 소비재 항목에서 제외함.

〈그림 6〉 소비재(자동차 제외)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7〉 화장품, 라면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화장품은 hs3304, 라면은 hs1902301010에 해당.

- 화장품과 라면의 수출 증가세는 올해에도 총수출 증가율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

* 2024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소비재(자동차 제외) 10.0%, 화장품 16.4%, 라면 32.3%, 총수출 9.0%

3. 수출 호조의 배경

▣ 배경 1: 미국 경기 호황과 중국의 경기 회복

-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와 IMF 등에서 예상한 전망치를 상회
 - 올해 5월 OECD는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6%, 중국 경제성장률을 4.9%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기존(2024년 2월 발표)보다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높은 수치
 - IMF 역시 5월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을 2.6%, 중국 경제성장률을 5.0%로 상향 조정
 -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과 더불어 미국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미국·중국 양국의 경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소비와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경기 확장 추세 지속
 - 2024년 미국의 국내총수요는 2023년 1.9%에서 2.5%, 수입수요는 -1.7%에서 2.2%로 반등이 예상되며³⁾, 소비와 투자의 증가에 따른 IT 품목과 화장품·석유제품 및 자본재 중심으로

대미국 수출 증가 기대⁴⁾

- 이러한 미국의 경기적 요인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대체 수요, 대미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출 확대, 한국 자동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으로 대미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중
- 중국은 가계소비, 제조업 수급, 서비스업 고용지표 개선 조짐 등 경기 회복세 유지
 - 2024년 중국의 국내총수요는 4.5%, 수입수요는 5.3%로 견조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⁵⁾
 - 중국 경제는 가계소비, 생산자물가지수(PPI), 서비스업 고용 등이 저점을 통과한 가운데 2024년 소매판매가 연간 5.3%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⁶⁾

■ 배경 2: 반도체 경기의 빠른 회복과 AI 수요 확대⁷⁾

- 2024년 세계 IT시장은 2023년에 부진했던 IT 기기 수요가 회복되고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약 8% 성장할 전망⁸⁾
 - 세계 IT 기기 시장은 2022년 -10.7%, 2023년 -9.1%로 역성장하며 부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3.6% 증가 예상
 - 세계 IT 서비스 시장도 2023년 6.1% 성장에 이어 2024년도 9.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IT산업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세계 반도체 수요 확대
 -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세계 IT시장 회복과 2023년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전년 대비 17.4% 성장할 것으로 예상⁹⁾
 - 특히,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서버의 AI 기능 채택과 SSD 수요 증가,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PC·스마트폰 시장 확대, 전기차·자율차 수요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
 -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70.5%,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¹⁰⁾

3) OECD(2024),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4 Issue 1 - chapter 2 - United States".

4) 한국은행(2024),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p. 5.

5) OECD(2024),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4 Issue 1 - chapter 2 - China".

6) 하나증권(2024), "2024년 하반기 중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 중국은 어떻게 만회하는가", p. 3.

7) 산업연구원(2024. 5),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보도자료, pp. 100-103 재정리.

8) Gartner(2024. 5), "Forecast Alert: IT spending worldwide, 1Q24 update".

9) Gartner(2024. 5), "Worldwide semiconductor Revenue Forecast".

10) Gartner(2024. 5), "Worldwide semiconductor Revenue 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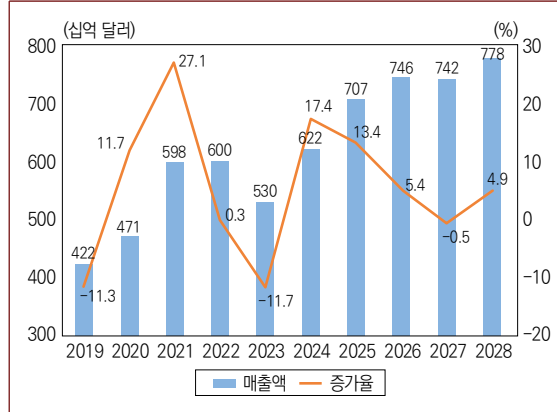
〈표 1〉 세계 IT 시장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2	2023	2024
IT 전체	4,515	4,691	5,089
	2.6	3.8	8.0
통신서비스	1,439	1,487	1,551
	-0.4	3.3	4.3
데이터센터	227	236	260
	19.7	4.0	10.0
IT 기기	730	664	688
	-10.7	-9.1	3.6
IT 서비스	1,306	1,385	1,520
	7.5	6.1	9.7
소프트웨어	812	915	1,042
	10.8	12.6	13.9

자료: Gartner(2024. 5), "Forecast Alert: IT spending worldwide", 1Q24 update.

〈그림 8〉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Gartner(2024. 5), "Worldwide semiconductor Revenue 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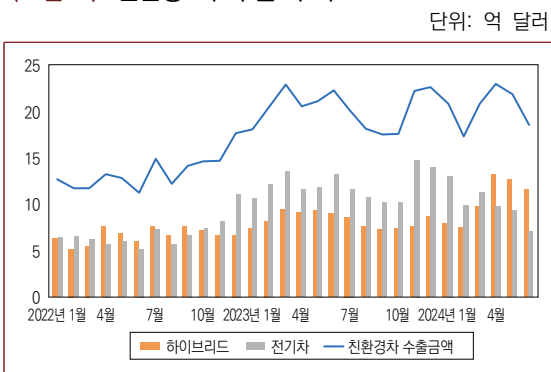
▣ 배경 3: 세계적인 친환경 기술 수요 확대

● 세계적인 친환경 선호는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

- (친환경 차) 상반기 친환경 차 수출금액은 122억 달러로 자동차 수출(370억 달러)의 32.9%를 차지
- 특히 하이브리드(HEV, PHEV)의 수출금액이 6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5% 증가하여 하이브리드의 수출이 최근 친환경 차 수출 호조를 주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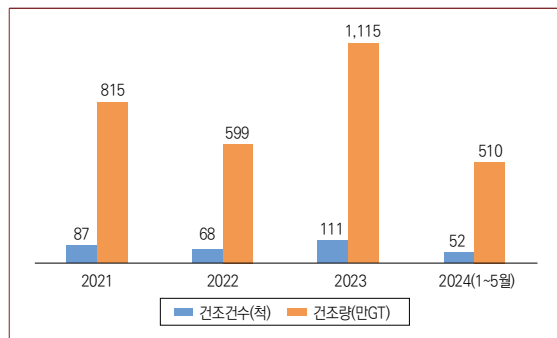
* 전기차 수출 중 미국 비중 추이(%): (2022) 33.6 → (2023) 35.2 → (2024 상반기) 45.0

〈그림 9〉 친환경 차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주: 친환경 차는 HEV(하이브리드),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BEV(전기차)를 의미.

〈그림 10〉 이종연료 선박 건조 추이



자료: Clarksons WFR(2024. 6. 10 기준).

11) SNE 리서치(2024. 3), "Global 전기자동차 시장 및 Battery 수급 전망(~2035)"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전기차시장은 수요 둔화로 전년 33.5%보다 16.9%포인트 감소한 16.6%의 성장을 전망. 유럽은 2025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CO₂ 규제에 맞춰 시장 분위기가 순수전기차(BEV)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급변 하반기부터 유럽의 전기차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

-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Dual Fuel)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 배경 4: 한류(Korean Wave)의 확산

- 한류의 확산은 문화를 넘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로 수출에 긍정적 영향
 - 세계적인 관심 속에 영화와 드라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면서 대상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
 - 한류현황지수는 2022년 3.2에서 2023년 3.3으로, 한류심리지수는 119.3에서 123.3으로 상승세를 지속¹²⁾
 -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23년 한국 총수출이 7.5% 감소하였지만, 한류 관련 수출액은 1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분석¹³⁾
 - K-푸드 수출금액에서 2월부터 일본,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로 급부상¹⁴⁾
 - 상반기 K-뷰티(화장품)의 수출금액은 중국이 약 11억 달러로 가장 많으나, 감소세인 반면에 수출 증가율이 미국 58.6%, 아세안 26.0%, 일본 17.6%에서 큰 폭의 증가
 -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 의하면, 한류지수가 1% 증가할 때마다 한류 밀접 소비재 수출이 약 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¹⁵⁾

■ 배경 5: 강달러 현상의 지속

-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세계시장에서 한국 수출 품목의 수출단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에 긍정적 영향
 - 원/달러 환율 상승에서 미국 경제 활황으로 인한 강달러 흐름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지만, 중동지역의 리스크 확대도 영향을 미쳤으며, 원화가 일본, 중국 등 주변국 통화와 동조화하면서 통화가치가 떨어졌다는 분석¹⁶⁾

* 원/달러 환율은 7월 15일 기준 1,382.8원으로 지난 4월 1,400.8원 이후 최고치 기록

12) 한류현황지수는 한류의 현재 인기와 대중화 정도를, 한류심리지수는 한류의 성장 또는 쇠퇴 정도를 나타냄.

1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4), “2023 한류 파급효과 연구”, p.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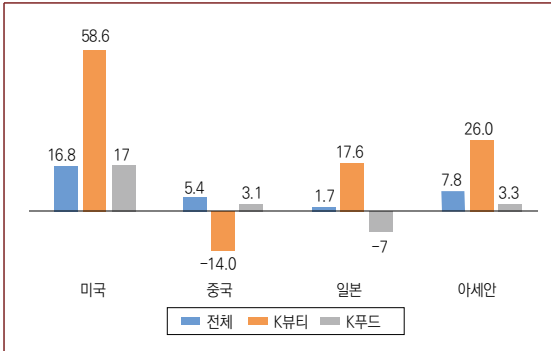
14) 농림축산식품부(2024. 6. 4), “주요 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자료”, 보도자료, p. 4.

15) 한국경제연구원(2023. 7),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서는 한류 확산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산출한 ‘한류지수(K-Wave Index)’를 변수로 사용

16) 조선일보(2024. 6. 29), “뿔뿔이 뿔뿔이... 원·엔·위안 ‘추풍낙엽’”,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_b/2024/06/29/NMUCG54DQ5D4DMKDNOQBINEYUA/(검색일: 2024. 6. 30).

〈그림 11〉 상반기 주요국 한류 품목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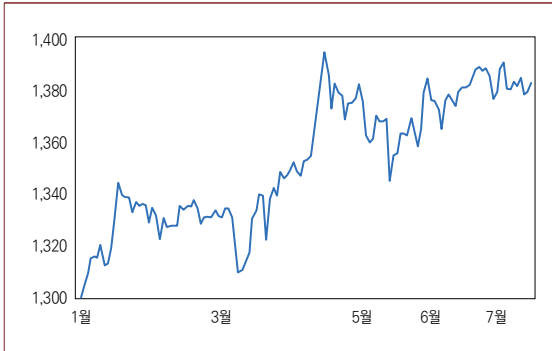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12〉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자료: 한국은행 증가 기준.

-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리를 낮추더라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¹⁷⁾

4. 리스크 요인과 과제

▣ 당분간 한국 수출은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올해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와 선박 등 주력산업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¹⁸⁾
 - 최근 반도체는 50%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전년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도 반도체의 업황 회복과 함께 반등하여 올해 수출 전망은 긍정적

▣ 다만,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리스크 요인 존재

- 특정 수출 품목 및 국가에 대한 높은 집중도
 - 상반기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19.6%이며,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합산하면 34.2%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17) 조선일보(2024. 6. 29), “뽕달러에 맥 못추는 ㄷ 통화… 원·엔·위안 ‘추풍낙엽’”,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6/29/NMUCG54DQ5D4DMKDNOQBINEYUA/(검색일: 2024. 6. 30).

18) 산업연구원(2024. 5),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보도자료, p. 50.

-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40%에 달해, 한국은 두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 대미·중 수출 비중 추이(한국무역협회, %): (2022) 38.8 → (2023) 38.0 → (2024. 1~6월) 38.1
- 만일 반도체 사이클이 후퇴하거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위축된다면, 한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
- 대중국 수출의 지속적인 둔화 가능성
 - 중국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10.7%에서 최근 10년 7.5%로 둔화되었으며, 수입 증가율 역시 2000~2008년 22.4%에서 2013~2023년 3.4%로 크게 하락
 - 중국은 2024년 양회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첨단제조 클러스터, 국가급 신형공업화(新型工业化) 시범구 등을 구축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제조’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강조¹⁹⁾
 - 그동안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²⁰⁾²¹⁾
- 한편, 제조업 해외 현지생산의 확대는 한국 수출에 부담
 - 해외투자를 목적별로 보면,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비중이 2000년 11.0%에서 2023년 62.3%로 현저하게 증가
 - 미·중 패권경쟁 심화, 보호무역 강화, 주요국의 산업육성 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구매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현지에서 해결하는 법인이 증가하는 분위기
 - 제조업 해외 현지생산 확대에 의한 해외 생산거점의 이동은 국내 중간재 수출을 일부 대체하여 한국 수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교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국의 무역 제재 강화 가능성
 - 탈세계화(degloablization)와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시 강도 높은 자국 보호무역 정책이 예상되는데, 트럼프가 제시한 통상 부문 주요 공약 중 10% 보편 관세의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등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 호조세 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음.²²⁾

19) 산업연구원(2024. 3), “양회(两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65호, p. 3.

20) 산업연구원(2023. 10),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55호, p. 5.

21) 산업연구원(2023. 10)에 의하면,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하면,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약 0.7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표 2〉 트럼프의 통상 부문 주요 공약

공약	내용
보편적 관세 도입	전 수입품에 약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 ²³⁾
상호무역법 제정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제품에 부과
바이든 정책 폐지·완화	그린딜 정책 폐기 기업 평균 연비규제(CAFE) 종료 캐나다 멕시코에 USMCA 자동차 부품 관련 조항 준수 요구 불필요한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 및 철폐 등
대중국 정책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관세 부과하는 방안 언급 ²⁴⁾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중국산 필수품 수입(우회수입 포함) 중단을 위한 4개년 계획 도입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및 모든 중국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연방 계약 금지 등

자료: Trump Agenda47 및 최근 언론보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4. 1) 등을 재정리.²⁵⁾

-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바가 있어 최근처럼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가 지속되면 미국이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할 가능성 존재²⁶⁾

▣ 수출 리스크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내외적 수출 전략 수립이 중요

- 수출 리스크 요인 중 일부는 구조적 요인의 성격이 강한 편
 -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수입구조 변화, 제조업 해외 현지생산의 확대 등은 구조적 요인으로 단기간에 이를 개선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
 -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 국가로서 향후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대내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교역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출 구조 변화가 필요
 -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확대는 한국 수출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기술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와 경쟁력 우위 선점이 중요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 4),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에 따르면,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직접효과로 약 152억 달러 감소, 간접효과로 인한 간접수출은 약 70억~8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23) Bloomberg Businessweek(2024. 7. 16), “Trump on Taxes, Tariffs, Jerome Powell and More”, <https://www.bloomberg.com/features/2024-trump-interview/>(검색일: 7월 19일).

24) Bloomberg Businessweek(2024. 7. 16), “Trump on Taxes, Tariffs, Jerome Powell and More”, <https://www.bloomberg.com/features/2024-trump-interview/>(검색일: 7월 19일).

25)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2024. 1),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pp. 2-3 재정리.

26) 한국은행(2024. 4),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BOK이슈노트 제2024-9호, p. 8.

- 향후 친환경 차,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와 자급률 제고로 대중국 수출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중국과의 기술 수준 및 경쟁력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인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대중국 수출 둔화가 우려되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
-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무역 강화 등 불확실한 세계 교역 환경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세계 교역 환경의 변화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 장려책을 확대
 - 한국이 미·중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인 만큼 양국의 무역분쟁 심화 및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국가를 이용한 공급망 형성 등의 전략 수립이 중요
 - 또한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인 품목의 미국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한정민 동향분석실 | 전문연구원 | jmhan@kiet.re.kr | 044-287-3291

박성근 동향분석실 | 연구위원 | sungpark@kiet.re.kr | 044-287-3172

강성우 동향분석실 | 연구원 | swkang@kiet.re.kr | 044-287-3677

이민주 동향·통계분석본부 | 연구원 | mjlee@kiet.re.kr | 044-287-3902